


|   |  |                |  |   |
|---|--|----------------|--|---|
| <br><b>인천광역시</b> |  | <b>보 도 자 료</b> |  | <b>재외동포청 최적지</b><br><b>인천</b> <b>뿐입니다</b> |
|   |  | 배포일자           | 2023년 4월 10일(월)<br>총 2매  |   |
| 담당<br>부서  | 국제협력과  | 담당자            | • 중국교류팀장      김은진 ☎440-3231<br>• 담당자              김미영 ☎440-3248    |   |
| 사진(이미지)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 참고자료       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|   |
| 보 도 시 점  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 |                |  |   |

## 유정복 시장, 칭다오시장 만나 우호협력 강화

- 인천시, 양 도시간 지속적인 우호교류협력 방안 논의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유정복 시장이 10일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오하오즈(赵豪志) 중국 칭다오시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, 양 도시간 지속적인 우호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.

인천과 칭다오는 1995년 9월 우호도시 결연 이후 경제무역, 항만, 물류, 문화,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.

우호도시 체결 20주년인 2015년에는 유 시장이 중국 주요도시와 관광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칭다오시를 방문하기도 했다.

칭다오시는 중국 산둥성에서 가장 앞서가는 대표적인 공업도시로, 방직·기계·자동차·화공·맥주 등의 전통산업과 해양산업, 바이오, 신에너지, 친환경등의 신흥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중국도시 중 우리국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며 많은 한국인들이 찾는 관광도시로 알려져있다.

자오하오즈 시장은 “코로나19 펜데믹으로 3년만에 처음 인천을 방문했지만 환영해 주셔서 감사” 하라며, “칭다오시와 인천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도시로서 항만 물류 및 인문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.” 고 말했다.

이에 유정복 시장은 “인천은 칭다오시와의 우호도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자오하오즈 시장과의 접견을 통해 양 도시의 경제, 항만, 물류, 문화, 인적교류 분야의 협력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.” 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1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